

2017년 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 (총 30개)

연번	표제항 (영역별 가나다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-1	긫다03	%	-긫다03 「접사」 (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) ‘그러한 상태가 심함’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. ﴿{심술긫다}/{앙살긫다}/{왁살긫다}/{힘긫다}.	표제어 추가
1-2	금쪽같이	%	금쪽같-이(金---)[--까지] 「부사」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. ﴿많은 농민들이 {금쪽같이} 여기던 땅을 버리고 달아난 까닭도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.《이문구, 오자룡》	표제어 추가
1-3	기반하다	%	기반-하다(基盤--) 「동사」 【…에】 바탕이나 토대를 두다. ﴿그는 오랜 경험에 {기반하여} 사건을 해결했다./요즘엔 실화에 {기반한} 영화가 인기다.	표제어 추가
1-4	배춧잎	%	배춧-잎[배 : 춘넛] [배춧잎이[배 : 춘넛피], 배춧잎만[배 : 춘넛-]] 「명사」 배추의 잎. ﴿{배춧잎을} 넣고 국을 끓였다./절인 {배춧잎에} 고기를 싸서 먹었다./담장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닭들은 {배춧잎을} 쪄아 먹고 있었다.《박경리, 토지》	표제어 추가
1-5	양반다리	%	양반-다리(兩班--)[양 : ---] 「명사」 =책상다리 「1」. ﴿{양반다리를} 틀고 앉다/{양반다리로}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리다.	표제어 추가
1-6	합격점	%	합격-점(合格點)[-격점] 「명사」 시험, 검사, 심사 따위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. ﴿{합격점이} 높다/{합격점을} 받다/이번 시험에서 {합격점을} 얻지 못하면 유급이	표제어 추가

연번	표제항 (영역별 가나다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2-1	만약	「명사」 =만일01(萬一)「1」.	된다. [I]「명사」 =만일01(萬一)[I]「1」. [II]「부사」 =만일01[II]. ¶{만약} 내일 비 가 온다면 집에 있어야지.	품사 추가
2-2	만일01	「명사」 「1」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 밖의 경우. ≒만약·약혹[I]· 여혹. 「2」 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 주 적은 양.	[I]「명사」 「1」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 밖의 경우. ≒만약[I]·약혹 [I]·여혹. 「2」 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 주 적은 양. [II]「부사」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 우에. ≒만약[II]. ¶{만일} 밝은 데서 본다고 하면 그의 입술은 과랑게 질렸을 것이다.《이광수, 흙》	품사 추가
2-3	식상하다01	「동사」 「1」 【…에/에게】 「1」 같은 음 식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물리 거나 질리다. ¶우리는 매일 나오 는 연예인들에게 {식상해} 있다./ 주책없이 풍성하고 기름진 우리 집 식탁에 서재호도 이젠 {식상 했는지} 피곤한 얼굴을 했다.《박 완서, 도시의 흥년》/진드기도 피 에 {식상하면} 덜 뜯는 법이었다. 《현기영, 변방에 우짚는 새》 「2」 『한의학』 음식에 의하여 비위가 상하다. 과식을 하거나 익 지 않은 음식, 불결한 음식을 먹 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나타난다.	[I]「동사」 [1] 【…에/에게】 「1」 어떤 음식 을 자꾸 먹어 물리다. ¶주책없이 풍성하고 기름진 우리 집 식탁에 서재호도 이젠 {식상했는지} 피곤 한 얼굴을 했다.《박완서, 도시의 흥년》/진드기도 피에 {식상하면} 덜 뜯는 법이었다.《현기영, 변방 에 우짚는 새》 「2」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리다. ¶새로운 구경거리에 굶주 려 있던 관객들은 늘 그런 그런 곡예에 {식상해}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마술이 펼쳐지자 경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.《최인호, 지구 인》/모두가 꼭 같은 말들을 하니 까요. 어지간히 {식상하는군요}.《 박경리, 토지》 [2] 『한의학』 음식에 의하여 비 위가 상하다. 과식을 하거나 익 지 않은 음식, 불결한 음식을 먹 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	품사 추가/ 뜻풀이 추가

연번	표제항 (영역별 가나다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			<p>음식을 섭취할 때 나타난다.</p> <p>[II] 「형용사」</p> <p>「1」 어떤 음식을 자꾸 먹어 물린 상태이다. ¶{식상한} 음식/매일 같은 밑반찬에 밥을 먹으니 {식상하다}.</p> <p>「2」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린 상태이다. ¶{식상한} 이야기/좋은 노래지만 자꾸 들으니 {식상하다}.</p>	
3-1	베다02	<p>「1」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.</p> <p>¶ 낫으로 벼를 {베다}/풀을 {베다}/나무를 {베다}/한칼에 목을 {베어} 버리다/남자들은 샷갓이나 우장을 걸치고 논물을 보러 나갔다 오고, 풀을 {베고} 나면 종일 할 일이 없었다.《한수산, 유민》</p> <p>「2」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를 내다.</p> <p>¶ 칼로 살을 {베다}/면도하다가 실수로 턱을 {베어} 피가 났다.</p>	<p>「1」 날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르다.</p> <p>¶ 낫으로 벼를 {베다}/풀을 {베다}/나무를 {베다}/한칼에 목을 {베어} 버리다/남자들은 샷갓이나 우장을 걸치고 논물을 보러 나갔다 오고, 풀을 {베고} 나면 종일 할 일이 없었다.《한수산, 유민》</p> <p>「2」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를 내다.</p> <p>¶ 칼로 살을 {베다}/면도하다가 실수로 턱을 {베어} 피가 났다.</p> <p>「3」 이로 음식 따위를 끊거나 자르다. ¶그는 배의 널빤지 위로 떨어진 해삼을 집어 들고 고물로 가서 걸터앉은 채 한 입 딱 {베었다}.《한승원, 폐촌》/현호는 손 시린 생각도 잊고 인절미부터 한입에 {베어} 먹었다.《오유권, 대지의 학대》/사내는 주머니에서 껌질 벗기지 않은 고구마를 꺼내 덩석 {베어} 물었다.《최인호, 지구인》</p>	뜻풀이 추가
3-2	변10	『문학』 옹고 그림이나 참되고 거짓됨을 가릴 목적으로 쓴 한문의 문체.	<p>「1」 입장이나 태도 따위를 드러내는 말. ¶작가의 {변}/출마의 {변}.</p> <p>「2」 『문학』 옹고 그림이나 참되고 거짓됨을 가릴 목적으로 쓴 한문의 문체.</p>	뜻풀이 추가

연번	표제항 (영역별 가나다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3-3	분다	<p>「1」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. ﴿콩이 {분다}/북어포가 물에 {불어} 부드러워지다./오래되어 {불은} 국수는 맛이 없다.</p> <p>「2」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. ﴿개울물이 {분다}/체중이 {분다}/젓이 {불었다}./재산이 {분는}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./마당에 노적가리가 열둘이더라도 쌀 한 톨을 초판 쌀로 애바르게 여겨야 살림이 {분는} 것이고...《송기숙, 암태도》</p>	<p>「1」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. ﴿콩이 {분다}/북어포가 물에 {불어} 부드러워지다./오래되어 {불은} 국수는 맛이 없다.</p> <p>「2」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. ﴿개울물이 {분다}/체중이 {분다}/젓이 {불었다}./재산이 {분는}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./마당에 노적가리가 열둘이더라도 쌀 한 톨을 초판 쌀로 애바르게 여겨야 살림이 {분는} 것이고...《송기숙, 암태도》</p> <p>「3」 ((주로 ‘몸’을 주어로 하여))살이 찐다. ﴿식욕이 왕성하여 몸이 많이 {불었다}./부엌집 마나님같이 몸이 {불은} 임이네는 눈을 부릅뜨고 용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침없이 말을 쏟아 놓았다.《박경리, 토지》/그럴 때면 으레 아직 열세 살밖에 안 되었다고는 하나, 벌써 튼튼스러운 아낙네만큼이나 몸이 {불어} 있는 미륵레가 나와서,...《한승원, 폐촌》</p>	뜻풀이 추가
3-4	운행하다02	<p>【...을】</p> <p>「1」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를 운전하여 다니다. ﴿고속도로를 {운행하는} 시외버스/너무 느린 속도로 승용차를 {운행하면} 교통 진행에 방해가 된다.</p> <p>「2」 『천문』 천체가 그 궤도를 따라 운동하다.</p>	<p>【1】 【(…을)】</p> <p>차량 따위가 정해진 도로나 목적지를 오고 가다. ﴿금일 부산행 열차는 {운행하지} 않습니다./그의 고향은 두메산골이라 버스가 하루에 한 번만 {운행한다}. 〓 고속도로를 {운행하다}/ 시내버스는 매일 정해진 노선을 {운행한다}.</p> <p>【2】 【(…을)】</p> <p>「1」 차량 따위를 운용하다. ﴿고속버스를 {운행하다}/승용차를 {운행하다}.</p> <p>「2」 『천문』 천체가 그 궤도를</p>	뜻풀이 추가

연번	표제항 (영역별 가나다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			따라 운동하다. ¶달이 궤도를 {운동하다}.	
3-5	원17	((일부 명사 뒤에 붙어)) '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¶{사무원}/{공무원}/{회사원}/{연구원}.	((일부 명사 뒤에 붙어)) 「1」 '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¶{사무원}/{공무원}/{연구원}. 「2」 '그 조직이나 단체 따위를 이루고 있는 사람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¶{구성원}/{조합원}/{회사원}.	뜻풀이 추가
3-6	허벅지	허벅다리 안쪽의 살이 깊은 곳. ¶{허벅지를} 드러내다/{허벅지를} 꼬집다/바지를 {허벅지까지} 걷어 올렸다./마루에 나와 한쪽 무릎을 세우며 앉는 두식이 어멈. 허연 {허벅지가} 치마 사이로 드러나 보였다.《한수산, 유민》	「1」 허벅다리 안쪽의 살이 깊은 곳. ¶치맛자락이 자꾸만 {허벅지} 사이로 말려 들어갔다. 「2」 =허벅다리. ¶{허벅지가} 굽다/{허벅지가} 튼실하다.	뜻풀이 추가
4-1	같이	같이	같-이	표제어 수정
4-2	잘못	잘못	잘-못	표제어 수정
5-1	당일	「1」 일이 있는 바로 그날. '그날'로 순화. ≍즉일. 「2」 =오늘[1] 「1」. '오늘'로 순화.	일이 있는 바로 그날. '그날'로 순화. ≍즉일.	뜻풀이 삭제
6-1	나12	「2」 ((주로 '-나 하다', '-나 싶다', '-나 보다' 구성으로 쓰여))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¶얼굴이 붉어서 난 자네가 술을 {마셨나} 했어./그 애가 많이 {아팠나} 싶었다./저 애가 왜 화가 {났나} 싶어서 내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./밖에는 비가 {내리나} 보다./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니 이제 가을이 {되었나} 보다./	「2」 ((주로 '-나 하다', '-나 싶다', '-나 보다' 구성으로 쓰여))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,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¶얼굴이 붉어서 난 자네가 술을 {마셨나} 했어./그 애가 많이 {아팠나} 싶었다./저 애가 왜 화가 {났나} 싶어서 내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./밖에는 비가 {내리나} 보다./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니 이제 가을이 {되었나} 보다./	뜻풀이 수정

연번	표제항 (영역별 가나다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		보다.	이 일을 {어떡하나}?/어제 무슨 일이 {있었나}?/밖에 비가 {오나}?	
6-2	경륜02	「2」 천하를 다스림. ≒영륜 「2」. 『천하 {경륜을} 논할 때는 그의 눈도 삼국정립을 예언하던 공명(孔明)의 혜안처럼 빛났다고 한다. ≪이문열, 황제를 위하여≫	「2」 세상을 다스림. 또는 그런 능력. ≒영륜 「2」. 『높은 {경륜의} 소유자/{경륜을} 쌓다/천하 {경륜을} 논할 때는 그의 눈도 삼국정립을 예언하던 공명(孔明)의 혜안처럼 빛났다고 한다. ≪이문열, 황제를 위하여≫	뜻풀이 수정
6-3	다투다	[3] 「1」 사태가 매우 급하다.	[3] 「1」 사태가 매우 급박한 상태가 되다.	뜻풀이 수정
6-4	대패01	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연장. 직육면체형의 작고 단단한 나무토막에 직사각형의 납작한 쇠 날이 위에서 아래 바닥까지 비스듬히 박혀 있으며,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.	나무의 표면을 반반하고 매끄럽게 깎는 데 쓰는 연장. 직육면체형의 작고 단단한 나무토막에 직사각형의 납작한 쇠 날이 위에서 아래 바닥까지 비스듬히 박혀 있으며,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.	뜻풀이 수정
6-5	무리01	사람이나 짐승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.	사람이나 짐승, 사물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.	뜻풀이 수정
6-6	쭈다01	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히다.	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혀서 죽이나 메주 따위를 만든다.	뜻풀이 수정
6-7	첫인사	사람을 새로 만나서 처음 하는 인사.	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, 또는 편지 따위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사.	뜻풀이 수정
6-8	끝인사	헤어질 때나 일을 마쳤을 때, 또는 편지에서 마무리 지을 때 하는 인사.	헤어질 때나 일을 마쳤을 때, 또는 편지 따위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 하는 인사.	뜻풀이 수정
7-1	감히	「2」 ((주로 ‘못’, ‘못하다’와 함께 쓰여))	「2」 ((주로 ‘못’, ‘못하다’와 함께 쓰여))	문법정보 수정
7-2	히07	((일부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))	((일부 명사나 부사,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))	문법정보 수정
8-1	나12	「1」 『자네 언제 {떠나나}?/자네 그 소식 듣고 얼마나 {기뻐나}?/여보게, 자네가 날 {도와주겠나}?/이 일을 {어떡하나}?/내가 왜 {이러나}?	「1」 『자네 언제 {떠나나}?/자네 그 소식 듣고 얼마나 {기뻐나}?/여보게, 자네가 날 {도와주겠나}?	용례 수정
8-2	있다01	[I][3] 『배가 아팠는데 조금 {있으니} 곧 괜찮아지더라./앞으로 사흘만 {있으면} 추석이다.	[I][3] 『앞으로 사흘만 {있으면} 추석이다.	용례 수정